

『노걸대(老乞大)』 언해본에 대한 서지적 연구

A Bibliographical Study on Korean Translations of the *Nogoldae*

韓美鏡 (Han, Mi-Kyung)*

◁ 목 차 ▷

- | | |
|-----------------------------------|---------------------------------------|
| 1. 서 언 | 4. 현전의 「노걸대」 언해본과 규장각 소장 「노걸대」 언해본 분석 |
| 2. 역학서와 「노걸대」 언해본의 간행 | |
| 3. 국내연구자들의 연구대상 「노걸대」 언해본 서명표기 분석 | 5. 결 언
<참고문헌> |

< 초 록 >

『노걸대(老乞大)』 언해본은 한국어학과 중국어학 연구의 기본적인 자료로 국어사와 구어 및 중국음운사 연구에 가치가 크다. 본 연구는 이후 연구의 정확한 서지사항 제공에 일조하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역학서와 『노걸대』 언해본의 간행을 살피고,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국내연구자들이 연구에 활용하는 『노걸대』 언해본의 서명부분을 고찰한 결과 『번역노걸대(翻譯老乞大)』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특히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나 평양판 『노걸대언해』를 활용하면서 약 1/3은 서명표기가 불명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국내 현전의 『노걸대』 언해본 조사 결과 『중간노걸대언해(重刊老乞大諺解)』가 가장 많이 현전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규장각에 가장 많은 판본이 소장되어 있음을 조사하였다. 셋째, 규장각 소장의 『노걸대』 언해본의 서지적 특징 고찰 결과 4종의 『노걸대언해』와 10종의 『중간노걸대언해』는 둘 다 동일한 내용과 체제로서 소장자의 표시거나 복각되면서 일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1종의 평양판 『노걸대언해』 분석 결과 표제(『구간노걸대언해』)와 권수제(『노걸대언해』) 및 간기(平安監營重刊)에 의거하여 국내연구자들은 이 판본에 대하여 『노걸대언해』, 평양판 『노걸대언해』, 기영판 『노걸대언해』 또는 『구간노걸대언해』 등으로 명명하고 있다. 한편 간행시기를 기준으로 『노걸대언해』는 ‘현종판’으로 불리우고, 평양판 『노걸대언해』는 ‘영조판’으로도 불리운다.

要語: 노걸대, 노걸대언해, 노걸대신석언해, 규장각, 번역노걸대언해, 언해본, 중간노걸대언해, 평양판 노걸대언해

*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강사(mkhank@korea.com)

접수일: 2012년 9월 4일 최초심사일: 2012년 9월 5일 심사완료일: 2012년 9월 15일

<ABSTRACT>

Korean Translations of the *Noguldae* is a basic reference material in Korean and Chinese language studies with huge value in the areas of Korean language history, colloquial language, and Chinese phonological history. Through this study, the publications of foreign language textbooks and Korean translations of *Noguldae* were reviewed with expectation to contribute to securing exact bibliographical details of the future studie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studies on the titles of Korean Translations of the *Noguldae*, it was found out that *Beonyeonnoeoldae* which are utilized by domestic researchers was more used than others, but about $\frac{1}{3}$ of them do not have clear indication of titles, especially in utilization of *Nogeuldaeunhae* or Pyongyang version of *Noguldaeunhae*.

Second, the study on domestically available Korean Translations of the *Nogeoldae* shows that *Junggannogeuldaeunhae* is more available than the other versions and overall, Kyujanggak has more versions than in other places.

Third, as a result of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version possessed by Kyujanggak, each of 4 types of *Noguldaeunhae* and 10 types of *Junggannogeuldae* by and large show similarities in terms of contents and structure but there are slight differences within each of them seem to have occurred by the version possessors' own marking or copying process.

The analysis of 1 type of Pyongyang version *Noguldaeunhae* proves that its cover title is *Kugannogeoldaeunhae* and its title of the beginning of the book is *Nogeoldaunhae* and *Pyongankamyongjungan* exists in its record of publication. With these factors, it is called *Nogeoldaeunhae*, Pyongyang version *Nogeoldaeunha*, Kiyong version *Nogeodaenhae* or *Kugannogeoldaeunhae*, etc. respectively. And, depending on publication period, *Noguldaeunhae* and Pyongyang version *Nogeoldaeunha* are called 'Hungjong version' and 'Yeongjo version', respectively.

Key words: Kyujanggak, *Nogeoldae*(a Conversational Textbook of Spoken Chinese), *Nogeuldaeunhae*, *Nogeuldaesinseokunhae*, Kyujanggak, *Beonyeonnoeoldae*, unhaebon(Korean Translations), *Junggannogeuldaeunha*, Pyongyang version of *Noguldaeunhae*

1. 서 언

1.1 연구의 목적과 방법

「노걸대(老乞大)」는 「박통사(朴通事)」와 더불어 한어(漢語), 즉 중국어를 익히기 위한 어학 교재로 기본적인 내용은 조선인(고려인)과 중국인 간의 일상적인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다. 1998년 12월 고려시대 「노걸대」 원본에 해당하는 판본이 발굴, 공개되기 전까지 조선 성종 14년(1483)에 기존 「노걸대」를 대폭 줄이고 고친 이른바 「산개노걸대(刪改老乞大)」가 가장 오래된 것이었다.¹⁾ 즉, 고려시대에 비롯되었으나 현전하는 대부분의 「노걸대」는 모두 조선시대 것으로 역관(譯官)들의 한어 학습서였으며, 역과(譯科) 시험에도 이용되었다.²⁾

일명 한문본 「노걸대」에 한글로 중국어 발음을 표기하고 한글로 풀어 쓴 것이 언해본(諺解本)이며, 현전하는 「노걸대」 언해본으로는 「번역노걸대(翻譯老乞大)」,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 평양판(平壤版) 「노걸대언해」, 「노걸대신석언해(老乞大新釋諺解)」, 「중간노걸대언해(重刊老乞大諺解)」의 다섯 이본(異本)이 있다.³⁾

한편, 기존 연구를 통하여 국내연구자가 연구대상으로 활용하는 「노걸대」의 주요 판본은 주로 「노걸대언해」와 「번역노걸대」임을 분석하였다.⁴⁾ 국어학자와

1) “세계유일 元代 중국어 회화서 「노걸대」 완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0699925>>.

2) 「朝鮮王朝實錄」 태조 3년, 「世宗實錄」 세종원년과 93년, 「文宗實錄」 문종원년에 한학, 몽어과, 왜어과, 여진어과 관련 기록이 있다. 한편, 성종 16년(1485)의 「經國大典」에 역과 초시 배강(背講) 과목으로 「노걸대」, 「박통사」 및 「직해소학(直解小學)」이 기록되어 있다.

3) 일부 권수제가 아니거나 구별을 위하여 후대에 붙여진 서명인 경우도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국내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들 5종의 「노걸대」 언해본의 서명을 통용서명으로 한다.

4) 한미경, “국내연구자의 「노걸대」 연구 및 판본활용에 대한 계량적 분석,” 「서지학연구」 51집(2012. 6), 445-471에서 총 157편으로 조사된 연구대상 노걸대 판본은 일부 불확실한 서명을 사용한 판본을 제외하면 총 15종이었으며, 15종 중 가장 많이 사용된 판본은 「노걸대언해」(26.1%)와 「번역노걸대」(18.5%)로 전체 44.6%의 논문이 이 두 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연구와 달리 「번역노걸대」가 연구대상으로 많이 활용

중국어학자들에 의하여 원문과 내용을 대상으로 다방면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전체적인 현전본에 대한 서지적 조사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9종으로 알려져 있는 「중간노걸대언해」는 실제 규장각에 10종이 소장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학서와 「노걸대」 언해본의 간행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국내 연구자가 연구에 활용한 「노걸대」 언해본 판본으로 표기하고 있는 서명을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현전하는 「노걸대」 언해본을 조사 분석하고, 규장각 소장 2종의 「노걸대언해」와 「중간노걸대언해」를 대상으로 서지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학서와 「노걸대」 언해본의 간행의 경우 문헌연구와 역사연구 및 메타스터디(meta study) 연구방법을 통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국내연구자가 연구에 활용한 「노걸대」 언해본 판본의 서명표기 분석의 경우 기존연구의 기본적인 조사를 토대로 하되 문헌연구와 통계방법으로 분류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셋째, 현전의 「노걸대」 언해본 조사 분석의 경우 인터넷조사 및 원본실사를 통하여 조사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일부 현전상황과 현전본 조사가 어려운 경우 문헌연구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넷째, 규장각 소장의 「노걸대」 언해본 분석의 경우 원본과 마이크로폼자료의 실사를 통하여 형태서지학적 방법으로 각 판본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노걸대」 및 「노걸대」 언해본 관련 선행연구의 경우 크게 1) 언어학적 연구, 2) 어문형태적 연구, 3) 내용적 연구, 4) 자료적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노걸대」 및 「노걸대」 언해본 관련 연구는 대부분 국어학이나 중국어학

되는 것으로 분석된 이유는 「노걸대언해」와 평양판 「노걸대언해」를 혼용하여 표기하였기 때문임을 이 연구에서 알 수 있게 되었다.

의 언어학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관련 선행연구의 대다수는 언어학적 연구이다. 일례로 「노걸대언해」의 현종판(1670)과 영조판(1745)에 대한 비교 연구의 경우 특히 영조판에 나타난 국어사적인 특징을 탐색하였다.⁵⁾ 또한 5종의 「노걸대」 언해본을 대상으로 원문과 번역문의 ‘시(是)’의 대역(對譯)이나 ‘將’의 번역 등을 논의한 예도 있다.⁶⁾

둘째, 형태적인 연구는 어문형태적 연구로서 예로 김형철은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의 비교에서 두 판본을 형태면에서 비교하되 곡용체계(曲用體系)와 활용체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⁷⁾

셋째, 내용적인 연구는 복식 등과 같은 특정 문화나 당시의 문화사적 측면 연구로서 「노걸대」 및 「노걸대」 언해본에 등장하는 단어나 문장과 내용을 통하여 그 시기의 관련부분을 살피고 있다.⁸⁾

넷째, 자료적 연구는 「노걸대」 및 「노걸대」 언해본의 판본연구라던가 자료적 가치 측면의 연구로서 일례로 사역원 한학서를 대상으로 기초 회화 및 강독용 역학서와 유해류(類解類) 역학서에 대한 논문 등이 있다.⁹⁾

이상과 같이 국어학자와 중국어학자들에 의하여 언어적인 측면이나 형태 및 내용과 자료적 측면을 대상으로 다방면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표기되고 있는 연구대상의 「노걸대」 언해본의 서명에서 일부 동명에서의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고, 현전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발견하였다.

5) 김문용,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의 현종판(1670)과 영조판(1745)에 대한 비교 연구,” 『국어사연구』 5호(2005), 7-48.

6) 맹주역, “老乞大諺解類 諸版本 번역의 문제에 관한 연구(1),” 『중국어연구』 36집(2006. 6), 3-25.; 맹주역, “老乞大諺解類 諸版本중 ‘將’의 번역에 관한 연구,” 『中國學研究』 38집(2006. 12), 31-56.

7) 金炯哲,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比較,” 『文學과 言語』 1집(1980), 93-122.

8) 김진구, “노걸대의 복식연구,” 『服飾文化研究』 4권1호(1996), 1-14.; 서정원, “「老乞大」 刊本들을 통해본 14-18세기의 복식관련 용어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2).; 梁五鎮, “原本「老乞大」의 文化史的 價値에 대하여,” 『中國學報』 47집(2003), 43-65.

9) 정승혜, “司譯院 漢學書의 基礎的 研究,” 『藏書閣』 3집(2000), 167-214.

2. 역학서와 「노걸대」 언해본의 간행

본 장에서 역학서와 「노걸대」 및 「노걸대」 언해본의 간행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역학서의 간행

외국어 교육인 역학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으로 산국시대 신라 때에 왜전(倭典)이 설치되고 한어관리 전문인력인 상문사(詳文師)를 두었다.¹⁰⁾ 고려시대에는 충렬왕 2년(1276)에 통문관(通文館)이 설치되었다가 고려 말기에 사역원(司譯院)으로 개칭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1년(1392)에 역과(譯科)를 정하고 이듬해 9월에 전담기구로서 사역원이 설치되었다. 세종 때에 사역원에는 한학(漢學), 몽학(蒙學), 여진학(女眞學), 왜학(倭學) 등 4학이 갖추어졌으며(주 2) 참조), 이후 계속적으로 다양한 각 어학분야의 교과서와 학습서인 역학서들이 간행되었다(<표 1> 참조).¹¹⁾

<표 1> 역학서 간행 정리표

시 기	서 명	저 자	비 고
고려말기	老乞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명 원간노걸대, 구간노걸대, 구분노걸대 • 1998년 발견 • 918-1392
1346	朴通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하지 않음
태조년간	直解小學	偈長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하지 않음 • 1392-1398
1449	直解童子習譯訓評話	成三問 등	

10) 『三國史記』 권제39 잡지(雜誌) 제팔 직관(職官) 중조(中條).

11) 鄭丞惠, “한국에서의 한어(漢語) 교육과 교재의 역사적 개관,” 『국어사연구』 4호(2004), 139-141 <표 4>. ; 鄭在永, “譯學書 자료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17호(2000. 12), 303-304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노걸대(老乞大)」 언해본에 대한 서지적 연구

시 기	서 명	저 자	비 고
1473	訓世評話	李邊	
1478	譯語指南	金自貞 등	
1480	訓世評話		
1483	(刪改)老乞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귀가 원대 북경어를 명대 북경어로 수정 • 전하지 않음
1500	日用漢語翻譯草	李昌臣	
	老乞大	崔世珍	
1517	翻譯老乞大	崔世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해본 • 을해자본 복각본
	翻譯朴通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해자본 • 상권, 국회도서관 소장
	老朴集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해자본
1518	訓世評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각본
1547	(刪改)老乞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인자복각 • 통문관 山氣文庫 소장(2693) • 산개본의 이본 추정
1657	語錄解	鄭澆	
1669	語錄解	南二星 등	
1670	老乞大諺解	鄭太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해본 • 현종본
	象院題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通文館志 기록
1676	改修捷解新語	康遇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어
1677	朴通事諺解	權大運, 朴世華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해본
1680-4	淸語老乞大	崔厚澤, 李濂, 李宜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주어 • 華語類抄 1권을 새로이 편찬
1690	譯語類解	愼以行	
1703	老乞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기: 康熙四十年 • 숙종판 노걸대
1721	五倫全備諺解		
1703-4	淸語總解	朴昌裕 등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주어와 여진어 • 일명 三譯總解
1735	經世正音	李聖彬 등	
1737	捷解蒙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어
1748	改修捷解新語	康遇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어

시 기	서 명	저 자	비 고
1741	蒙語老乞大8권	李最大 등	• 몽고어
1745	老乞大諺解	卞煜 序	• 평양판
1763	老乞大新釋 1권	邊憲 등	• 또는 1761
1763	老乞大新釋諺解 3권	邊憲 등	• 또는 1761
1765	朴通事新釋 1권	金昌祚	
	朴通事新釋諺解 3권	"	• 언해본
1768	蒙語類解		• 몽고어
1774	三譯總解		• 중간본
1775	譯語類解補 1권	金弘喆	• 金指南의 손자
1777	小兒論		• 新譯小兒論
	八歲兒		• 新譯八歲兒
1778	方言集釋		• 필사본
1779	漢清文鑑 15권	李洙	• 초명: 李湛 • 한어, 만주어, 한국어대역(對譯)사전
1780년대	倭語類解		• 일본어
1781	重刊捷解新語	崔鶴齡	• 일본어 • 重刊改修捷解新語
1784	經書正音		• 중간본 • 通文館藏版 • 8종의 유교경전에 중국음 표기
1789	古今釋林		
1790	隣語大方		
	捷解蒙語 4권	方孝彥	• 몽고어 • 중간본
	蒙語類解		• 몽고어 • 중간본
	蒙語老乞大		• 몽고어 • 중간본
1795	重刊老乞大 1권	李洙, 張濂, 金倫瑞 등	
	重刊老乞大諺解 2권	"	• 언해본
	(重刊)朴通事新釋	邊憲 등	
	(重刊)朴通事新釋諺解		• 언해본
1796	捷解新語文釋 12권	金健書	• 일본어

시 기	서 명	저 자	비 고
고종년간	你呢貴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사본 • 장서각소장 • 大正八年己未(1919) 개장 • 1852-1919
	華語類抄 1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주어 • 1852-1919
1883년	華音啓蒙 2권	李應憲	
	華音啓蒙諺解	"	
隆熙년간	華語類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한대역사전 • 1907-1910
1919	註解語錄總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어속어사전

조선시대의 역관들은 사역원의 관리나 지방 역학의 훈도 등으로 활약하였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임무는 통사(通事) 즉 통역이었다. 또한 이들의 역사적 주요 업적의 하나로 <표 1> 중 「직해소학」, 「역어지남(譯語指南)」, 「한청문감(漢淸文鑑)」 등의 어학 교재 등의 편찬을 들 수 있다.

역학서 중 대표적인 한어교과서 「화음계몽」, 「노걸대신석」, 「노걸대신석언해」, 「박통사신석」, 「박통사신석언해」, 「중간노걸대」, 「중간노걸대언해」 등 외에 만주어 교과서인 「청어노걸대」와 「청어총해」, 몽고어교과서인 「몽어노걸대」와 「첩해몽어(捷解蒙語)」 등도 있다. 이외에 「왜어노걸대(倭語老乞大)」와 같이 전하지 않는 역학서들도 있다.¹²⁾

2.2 「노걸대」 언해본의 간행

「老乞大」는 고려시대에 처음 만들어졌으나 서명은 「세종실록(世宗實錄)」에서 처음으로 보인다.¹³⁾ 현전본에 의하면 중종년간에 최세진(崔世珍)이 처음으로

12) 姜信沆, 「전하지 않는 역학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13) 세종 5년(1423), 8년(1426), 16년(1434) 등에 보인다. 그중 세종 5년 6월의 기록을 보면 “예조에서 사역원 첩정으로 계하기를, 「노걸대」, 「박통사」, 「전한서」, 「후한서」 등의 경전이 판본이 없으므로 배우는 자가 전사하여 송습하게 되니 청컨대 주자소에서 명하여 인출

『번역노걸대』로 언해하면서 이후 다음과 같이 언해되어 전하고 있다(<표 1> 참조).

2.2.1 『번역노걸대』

2권2책으로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언해본으로 조선 중종 때 최세진(崔世珍)이 전래의 한문본 『노걸대』를 언해한 것이다(<그림 1> 참조). 원본 『노걸대』를 성종년간에 베이징 및 그 주변에서 통용하는 공용표준어인 북경관화로 교정한 『산개노걸대(刪改老乞大)』를 참고하여 번역한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한문본 『노걸대』의 원문에 중국음을 한글로 달고 언해한 것이다.

최세진의 『사성통해(四聲通解)』에 『노걸대』와 『박통사』를 언해하였다는 기록과 『번역노걸대박통사범례(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가 실려 있어 편찬과 간행이 추정되고 있다. 원간본은 전하지 않으나 현재 전하는 책이 을해자본의 복각으로 보이고, 동시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번역박통사(翻譯朴通事)』가 을해자본이므로 이 책도 원래 을해자로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권수제가 『노걸대』이나 원본 『노걸대』와 현종 11년(1670)의 『노걸대언해』와 구별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번역노걸대』라고 부르고 있다.

2.2.2 『노걸대언해』

금속활자본의 2권 2책으로 현종 11년(1670)에 정태화(鄭太和) 등이 교서관(校書館)에서 간행한 것이다(<그림 2> 참조). 즉, 『통문관지(通文館志)』 권8 서적조(書籍條)에 ‘내사노걸대언해(內賜老乞大諺解)’라는 기록이 있고 ‘강희경술양과

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禮曹據司譯院牒呈啓 老乞大 朴通事 前漢書 直解孝經 等書 經典板本 讀者傳寫誦習 請令鑄字所引出 從之.)”라는 기록을 통해 당시 『노걸대』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6년 6월 기록(頒鑄字所 印老乞大朴通事于承文院司譯院 此二書譯中國之書也)에 의하면 활자로 인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노걸대(老乞大)」 언해본에 대한 서지적 연구

정상국계령운각주자인행(康熙庚戌陽坡鄭相國啓令芸閣鑄字印行)’이라고 주(注)를 하고 있다. 이는 「노걸대언해」의 내사 기록으로서 강희경술 즉 현종 11년(1670)에 운각에서 금속활자로 간행한 것에 대한 기록이다. 한편, 이는 이하의 평양판 「노걸대언해」와 구별하기 위하여 간행시기에 의거하여 현종판 「노걸대언해」 또는 ‘현종판’으로도 표기하고 있다.



<그림 1> 「번역노걸대」



<그림 2> 「노걸대언해」

2.2.3 평양판 「노걸대언해」

목판본의 2권 2책으로 서제와 관심제가 「노걸대언해」이나 실제 상술의 「노걸대언해」와 여러 면에서 다르고 서문과 간기에 의하면 영조 21년(1745)에 사역원 한학교수였던 신성연(申聖淵) 등이 평양에서 중간한 것이다(<그림 3>, <그림 4> 참조). 상권 책 머리에 변욱(卞煜)이 쓴 서가 실려 있고 서가 쓰인 시기는 을축(乙丑) 즉, 영조 21년(1745)으로 이를 통해 간사시기를 알 수 있다. 하권 뒷부분에 교정관과 서사관의 명단이 실려 있다. 교정관은 사역원(司譯院) 소속의 신성연(申聖淵), 변욱(卞煜), 이천식(李天植)이며, 감동(監董)과 감인(監印)은 박도관(朴道貫)과 최정흠(崔廷欽)이다. 서사관은 사역원의 임득우(林得雨), 김

리희(金履熙), 한계주(韓啓周)이다. 이상 명단 뒤에 ‘평안감영중간(平安監營重刊)’이라는 간기가 기록되어 있어 이 책이 평안감영 즉, 평양감영에서 간행한 중간본임을 알 수 있다(<그림 4> 참조). 이는 실체는 사역원에서 언해하였으나 역관의 주요 활동무대가 평양이므로 간행은 그곳에서 이루어졌으며, 초간본이후 간행된 중간본임을 알려 주는 기록이다.

한편, 국내연구자들은 이 판본에 대하여 간기의 기록에 이거하여 ‘평양판(平壤版)’ 또는 평양의 옛이름을 따 ‘기영판(箕營版)’ 등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평양판 「노걸대언해」나 기영판 「노걸대언해」라고도 한다.¹⁴⁾ 그 외 표제에 의거하여 「구간노걸대언해」 등으로 명명하고도 있으며, 간행시기에 의거하여 영조판 「노걸대언해」 또는 ‘영조판’으로도 표기하고 있다.

2.2.4 「신석노걸대언해」

이는 변헌(邊憲)의 「노걸대신석(老乞大新釋)」 혹은 「신석노걸대(新釋老乞大)」를 언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이다. 영조 37년(1761)에 변헌이 수정한 「노걸대신석」 1본과 더불어 간행된 것으로 본다. 즉, 이 책에는 서문(序文)과 간기(刊記)는 없으나 「통문관지」 권8의 서적조(書籍條)와 짐물속조(什物條)의 기록으로 보아 「노걸대신석언해」도 그즈음 평양에서 간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¹⁵⁾ 한편, 「노걸대신석(老乞大新釋)」 서문에 따르면 이 언해에도 김창조(金昌祚)가 함께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⁶⁾ 현재 국내현전본은 없고 콜롬비아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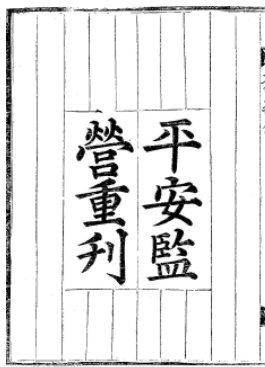
14) 기영(箕營)은 ‘평양감영(平壤監營)’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로서 평양(平壤)의 옛 이름 기성(箕城)인 것에서 온 것이다. 참고로 ‘평양판’과 ‘기영판’ 외에도 간기의 용어 그대로 사용하여 일부 ‘평안판’이라고도 하나 분석대상의 논문에서는 보이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다.

15) ‘新釋朴通事板諺解板 訓長金昌祚等修整 乾隆乙酉箕營刊版.’

16) “책이 이루어져 이름하기를 「노걸대신석」이라 하였으니 임금의 명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또 「박통사신석」을 김창조에게 맡길 뜻을 조정에 고하여 허락을 받았다. 이로부터 여러 책이 신석을 아울러 갖추어 통화에 막힘이 없게 되었다. 이제 이 신석이 통화 편리에 추가되었다(書成名之曰老乞大新釋 承上命也 既又以朴通事新釋 分屬金昌祚之意 筵稟蒙允 自此諸書并有新釋 可以無礙於通話也 今此新釋 以便於通話爲主).”



<그림 3> 평양판「노걸대 언해」권수제면



<그림 4> 평양판「노걸대 언해」간기면



<그림 5> 「중간노걸대언해」

2.2.5 「중간노걸대언해」

정조 19년(1795)이나 이후에 이수(李洙) 등에 의하여 「중간노걸대(重刊老乞大)」를 언해된 것으로 보인다. 상하 2권의 목판본으로 원문과 언해 사이를 백원(白圓, ○)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권 54건과 하권 57건의 총 111건의 사안별로 대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그림 5> 참조). 간행 연대나 편저자를 알 수 있는 서문이나 발문 및 간기 등은 없으나, 「중간노걸대」 권말에 「乙卯仲秋 本院重刊」이라는 간기와 교서관 이수 등 7명, 교정관 홍택복(洪宅福) 등 10명, 서서관 최감(崔臧) 등 10명, 감인관 장수(張壽) 등 총 28명의 명단이 있다. 즉, 간기와 사역원 관료의 활동연대를 감안하여 정조 19년(1795)에 사역원에서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원문의 개정이 있을 때는 언해본도 같이 간행된다는 사실과 표제와 판심제기 「중간노걸대」인 것으로 미루어 1795년 또는 그후에 언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현종년간에 정태화에 의해 간행된 「노걸대언해」의 경우 「高麗王京」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에 비하여 정조년간에 이수가 중간한 「중간노걸대」는 「朝鮮王京」이라고 고쳐져 있다. 즉, 「중간노걸대언해」에서 「朝鮮王京」이라고 적혀

있는 점을 보아도 「중간노걸대」를 저본으로 하여 언해본 것으로 보인다. 「노걸대」 언해본 중 가장 많이 전하고 있다.

3. 국내연구자의 연구대상 「노걸대」 언해본 서명표기 분석

본 장에서는 국내연구자가 「노걸대」 언해본을 활용한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명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대상판본과 통용서명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¹⁷⁾

<표 2> 「노걸대」 언해본 활용 연구의 대상판본 분석표

		대상판본	간사년	통용서명	비 고
1	1	飜譯老乞大	1512		
		飜譯老乞大	16세기초		
		飜譯老乞大			
		飜譯老乞大			
5	8	飜譯老乞大	1510경	평양판노걸대언해	
		老乞大諺解	1670		
		평양간영 老乞大諺解	1745		
		老乞大新釋諺解	1761		
		重刊老乞大諺解	1795		
10		老乞大諺解			
		重刊老乞大諺解			
		飜譯老乞大		평양판노걸대언해	
		老乞大諺解			
		기영판老乞大諺解			
		重刊老乞大諺解			

17) 한미경(2012), 468-471, <부록>에 실려 있는 총 78종 논문의 대상판본 중 「노걸대」 언해본 만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즉, 연구대상 「노걸대」 판본 중 서명만을 대상으로 언해본이 아닌 것은 제외하되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서명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한으로 실제와 다를 여지가 있다. 두 번째 번호는 이전의 문헌단위 판본활용 분석표 상의 순서이다. 간사년과 비교상의 영인본은 논문에서 밝힌 경우이다.

「노걸대(老乞大)」 언해본에 대한 서지적 연구

		대상판본	간사년	통용서명	비 고
		飜譯老乞大 老乞大諺解 舊刊老乞大諺解 老乞大新釋諺解 重刊老乞大諺解	1510 1670 1745 1763 1795		
		평양감영중간본	1745	평양판노걸대언해	규장각총서영인본
10	15	老乞大諺解 老乞大諺解 老乞大諺解(평양감영중간본) 老乞大新釋諺解 重刊老乞大諺解	1517 이전 1670 1745 서 1763 1795 이후	평양판노걸대언해	
	17	老乞大諺解			
		老乞大諺解 老乞大諺解(평양감영중간본) 老乞大新釋諺解 重刊老乞大諺解	1670 1745 1761 서 1795 이후		
		老乞大新釋諺解			
	20	老乞大諺解 평양감영	1745	평양판노걸대언해	규장각총서영인본
15		飜譯老乞大 老乞大諺解 舊刊老乞大諺解(평양감영중간본) 老乞大新釋諺解 重刊老乞大諺解		평양판노걸대언해	
		언해서		서명불확실	영인본
		老乞大諺解			
		飜譯老乞大			
	25	飜譯老乞大			
20		飜譯老乞大 重刊老乞大諺解			
		飜譯老乞大 老乞大新釋諺解 重刊老乞大諺解	1515경 1763 1795		최재영 2005
		飜譯老乞大 老乞大諺解 老乞大諺解(평양감영중간본) 老乞大新釋諺解 重刊老乞大諺解	1517 이전 1670 1745 서 1763 1795 이후	평양판노걸대언해	

		대상판본	간사년	통용서명	비 고
		老乞大諺解上下			
	30	老乞大諺解 重刊老乞大諺解			
25		飜譯老乞大 老乞大諺解 重刊老乞大諺解	16세기 17세기 18세기		
		飜譯老乞大			
	34	飜譯老乞大 老乞大諺解 老乞大諺解(평양감영중간본) 重刊老乞大諺解	1517 이전 1670 1745 서 1795 이후	평양판노걸대언해	
	35	飜譯老乞大 老乞大諺解 重刊老乞大諺解			대제각 1973 규장각총서 1944 홍문각 1984영인본
		老乞大朴通事諺解			규장각총서9 경성 제국대 학법문학부 출판 영인본
30	37	飜譯老乞大 老乞大諺解 평양감영중간 老乞大諺解 重刊老乞大諺解	1510 1670 1745 1795	평양판노걸대언해	
	39	飜譯老乞大 老乞大諺解 舊刊老乞大諺解 老乞大新釋諺解 重刊老乞大諺解	1510경 1670 1745 1763 1795	평양판노걸대언해	
	40	老乞大諺解			
		飜譯老乞大 老乞大諺解 舊刊老乞大諺解 老乞大新釋諺解 重刊老乞大諺解	1510경 1670 1745 1763 1795	평양판노걸대언해	
	42	飜譯老乞大 老乞大諺解 舊刊老乞大諺解 老乞大新釋諺解 重刊老乞大諺解	1510경 1670 1745 1763 1795	평양판노걸대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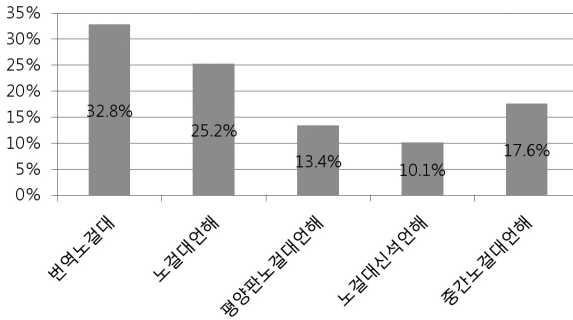
「노걸대(老乞大)」 언해본에 대한 서지적 연구

		대상판본	간사년	통용서명	비 고
35	47	飜譯老乞大 老乞大諺解 平壤監營老乞大諺解 老乞大新釋諺解 重刊老乞大諺解	1510경 1670 1745 1763 1795	평양판노걸대언해	
		번역본노걸대 언해본노걸대		번역노걸대 노걸대언해	
	50	飜譯老乞大 노걸대언해본		노걸대언해	규장각총서영인본
		飜譯老乞大			
40		飜譯老乞大	16세기초		
		飜譯老乞大			
		飜譯老乞大			국어사자료연구회 영인본
	55	飜譯老乞大			
		飜譯老乞大			
45		飜譯老乞大			
		飜譯老乞大 重刊老乞大諺解	1510 1795		
		飜譯老乞大			
	60	飜譯老乞大			
	61	飜譯老乞大			
	63	飜譯老乞大 老乞大諺解 평양본老乞大諺解 老乞大諺解	1745 1795	평양판노걸대언해	
50	69	老乞大諺解			
	70	번역본 언해본	1515 1670	번역노걸대 노걸대언해	
	74	老乞大諺解	1670		
	78	飜譯老乞大 老乞大諺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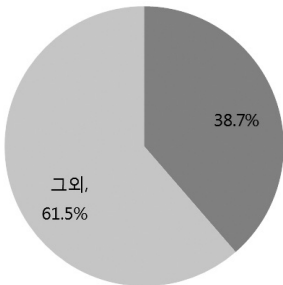
이상의 <표 2>에 의하면 총 53편 논문에 등장하는 「노걸대」 언해본의 서명수는 119개이다. 분석결과 「번역노걸대」 39회, 「노걸대언해」 30회, 평양판 「노걸대

언해」 16회, 「노걸대신석언해」 12회, 「중간노걸대언해」 21회, 부정확한 서명 사용 1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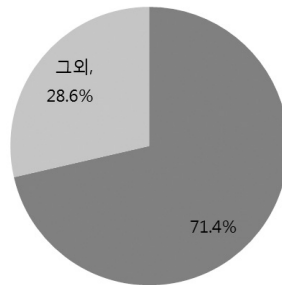
<그림 6>에 의하면 국내 연구자가 연구대상으로 활용한 「노걸대」 언해본 서명 분석 결과 「번역노걸대」가 전체 32.8%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노걸대」 언해본 중 「노걸대언해」와 평양판 「노걸대언해」의 활용을 보면 전체 중 61.5%로 약 2/3임을 알 수 있다(<그림 7> 참조). 그 외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 및 평양판 「노걸대언해」의 활용을 보면 전체 71.4%이다(<그림 8> 참조).



<그림 6> 「노걸대」 언해본의 활용회수 분석



<그림 7> 「노걸대언해」와 평양판 「노걸대언해」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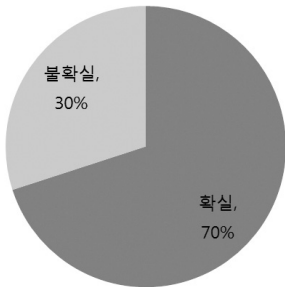


<그림 8>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 및 평양판 「노걸대언해」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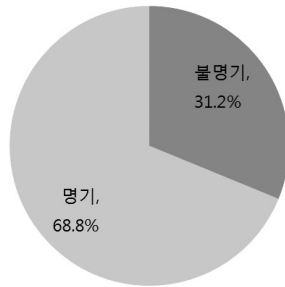
「노걸대(老乞大)」 언해본에 대한 서지적 연구

한편 「노걸대언해」에 대한 서명 표기를 살펴보면 약 30%가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지 않으며(<그림 9> 참조), 평양판 「노걸대언해」의 서명표기를 살펴보면 31.2%가 ‘평양판’을 명기하고 있지 않다(<그림 10> 참조). 이는 「노걸대언해」나 평양판 「노걸대언해」를 활용하면서 대체로 1/3은 서명의 표기를 불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전체 비율은 119회 중 14번으로 약 11.8%이다.

이상으로 국내연구자들이 연구에 활용하는 「노걸대」 언해본은 「번역노걸대」와 2종의 「노걸대언해」이나 일부 서명의 표기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판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9> 「노걸대언해」 서명표기 분석



<그림 10> 평양판 「노걸대언해」 서명명기 분석

4. 현전의 「노걸대」 언해본과 규장각 소장 「노걸대」 언해본 분석

본 장에서는 국내외 현전의 「노걸대」 언해본과 규장각 소장의 「노걸대」 언해본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4.1 현전 「노걸대」 언해본

국내외 각 「노걸대」 언해본의 현전상황을 조사한 결과 다음 <표 3>과 같다.¹⁸⁾

<표 3> 현전 「노걸대」 언해본 조사 정리표

	서명	서지사항	비고
경상대 도서관	重刊老乞大 諺解	[著者未詳]. 筆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光緒壬午[1882]. 1冊: 字數不定 : 30×17.5cm	• 古(병희)A10A 晝53조 • 安秉禧 소장, 1998년 기증
고려대 도서관	重刊老乞大 諺解	李洙(朝鮮) 撰. 木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2卷2冊: 四周雙邊 半郭 22.0×16.5cm, 有界, 10行 20字 國文雙行, 上3葉花紋魚尾 : 32.3×21.6cm 版心題: 重刊老乞大 表題: 老乞大諺解	• 대학원 C11 A21 • 2중 소장 1책(대학원 C11 A21 1) 2권2책(대학원 C11 A21 1-2)
국립중앙 도서관	重刊老乞大 諺解	李洙 等受命 編. 木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795 1卷1冊: 四周雙邊 半郭 22.5×16.5cm, 10行20字 註雙行, 上三葉花紋魚尾 : 32.3×21.2cm	• 한古朝40-1 • 상권 • 데이터베이스
규장각	老乞大諺解	司譯院(朝鮮) 編. 戊申字. [刊地未詳]: [刊者未詳], [顯宗11年(1670)] 2卷 2冊: 四周雙邊, 半郭 24.7×17cm, 有界, 10行 19字 注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 35.6×22.8cm	• 奎1528, 奎2044, 奎2304, 奎2347 • M/F83-16-97-L (奎 1528)
	老乞大諺解	申聖淵(朝鮮) 等撰. 木版本 [關西]: 平安監營, 英祖21年(1745) 2卷 2冊: 四周雙邊, 半郭 24×16.8cm, 有界, 10行 19字 注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 36×23cm 表題: 舊刊老乞大 序: 歲乙丑(1745) … 卞煜 卷末: 校正官 … 申聖淵[等諸臣銜名] 刊記: 平安監營重刊	• 奎2303 • M/F83-16-106-A
	重刊老乞大 諺解	[編者未詳]. 木版本 [刊地未詳]: [刊者未詳], [正祖19年(1795) 以後] 2冊 : 28.4×22cm 表題: 老解 藏書記: 久任所	• 一簣古 495.1824-Y63j • M/F85-16-340-D

18) 국내의 「노걸대」 언해본의 현전상황 조사를 위하여 온라인목록 검색 또는 실사를 진행하였으나 성암고서박물관과 컬럼비아대학의 경우 안병희, “老乞大와 그 諺解書의 異本,” 『인문과학논총』 35(1996. 6), 1-20을 참조하였다.

「노걸대(老乞大)」 언해본에 대한 서지적 연구

	서명	서지사항	비고
	重刊老乞大 諺解	李洙(朝鮮) 等編. 木版本 [刊地未詳]: 詞譯院, [正祖19年(1795)] 2冊: 四周雙邊, 半郭 22.4×16.4cm, 有界, 10行 20字 上花紋魚尾: 32×21.4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一簣古 495.1824-Y63j, 一簣古 495.1824-Y63jb, 가람古 495.1824-Y63ja • M/F99-16-33-O(一簣古 495.1824-Y63jc)
	重刊老乞大 諺解	李洙(朝鮮) 等編. 木版本 [刊地未詳]: 詞譯院, [正祖19年(1795)] 2冊: 四周雙邊, 半郭 22.3×16.4cm, 10行 20字 上花紋魚尾: 35.2×23.6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奎2049, 奎2050, 奎2051, 奎4866, 奎5566 • M/F83-16-106-B(奎2049)
	重刊老乞大 諺解	李洙(朝鮮) 等編. 木版本 [刊地未詳]: 詞譯院, [正祖19年(1795)] 2冊: 四周雙邊, 半郭 22×16.5cm, 有界, 10行 20字 上花紋魚尾: 30.5×20.5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古 3917-1 • M/F85-16-259-C
대구 카톨릭 대학교	老乞大諺解	戊申字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東裝2卷1冊: 周雙邊 半郭 24.8×17cm, 有界, 10 行19字, 內向2葉花紋魚尾: 32.2×22.0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8408-9 • 上, 下
서울대 중앙 도서관	重刊老乞大 諺解	李洙(朝鮮)...等受命撰. 木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1卷1冊(缺帙):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22.0 ×16.2cm, 有界, 半葉 10行20字 註雙行, 上花口, 上下向3葉花紋魚尾: 31.3×21.2cm 表題: 老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석 495.1824 Y63ne2 v.1, 일석 495.1824 Y63ne2 v.1 c.2 • 일석 이희승 교수 기증
성균관대 도서관	重刊老乞大 諺解	李洙 編 [正祖19(1795)]刊 1권 1책, 30.2×19.8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13-0005
성암고서 박물관	翻譯老乞大	木版本 1卷: 四周單邊 半郭 23.7×17.6cm, 有界 9行19 自 注雙行, 黑口 三葉花紋魚尾와 黑魚尾 版心題: 老乞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상 故白淳在씨 소장, 권 하 誠庵文庫소장, 현재 권 상 소재 불명 • 『通文館志』 권8 什物(續) 의거 1763년으로 추정
연세대 도서관	重刊老乞大 諺解	筆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1卷1冊(缺帙): 烏絲欄, 11行字數不定 註雙行, 無魚尾: 32.3×21.1cm 表題: 老解 版心題: 重刊老乞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서(I) 412.8 노걸대 언-필 • 卷上 • 디지털콘텐츠

	서명	서지사항	비고
영남대 도서관	(重刊)老乞 大諺解	[無刊記] 3冊: 木板本. ; 31×21cm	•古貴 727 노걸대○
	重刊老乞大 諺解	木板本 [刊地未詳]: [刊所未詳], [刊年未詳] 1冊[零本](全上下2冊): 四周雙邊, 半廓 22.3 ×16.4cm, 有界, 10行20字, 注雙行, 上下向六瓣 黑魚尾 : 32.7×21.5cm 本館所藏: 1冊(卷上)	•古도 727 노걸대언
컬럼비아 대학	老乞大新釋 諺解	1763 1卷(3卷3冊) : 四周雙邊 半郭 23.3×17cm, 有界 10行20字 注雙行 下向三葉花紋魚尾 卷首題: 老乞大新釋諺解 版心題: 老乞大新釋	

이상 <표 3>과 <그림 11>, <그림 12>에 의거하여 각 『노걸대』 언해본의
현전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번역노걸대』는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검색된다.¹⁹⁾
한편 상권의 경우 고 백순재(白淳在) 소장본으로 이후 ‘아단문고(阿丹文庫)’에
포함되었다하나 확인불가 상태이다.²⁰⁾

둘째, 『노걸대언해』는 규장각에 4종과 대구카톨릭대학교 도서관에 1종이 소장
되어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다고 하나 현재 확인불가하다.

셋째, 평양판 『노걸대언해』는 규장각에 1종이 소장되어 있다.

넷째, 『노걸대신석언해』는 1946년에 방중현(方鍾鉉) 선생이 송석하(宋錫夏) 교
수 소장의 권 2와 3인 2책을 소개하였다. 이후 행방을 알 수 없다가 권 1 책이
컬럼비아대학에 소장되어 있음이 알려졌다.²¹⁾

다섯째, 『중간노걸대언해』는 경상대도서관에 1종, 고려대도서관에 1종, 국립중
앙도서관에 1종, 규장각에 10종, 서울대중앙도서관에 1종 및 영남대도서관에 1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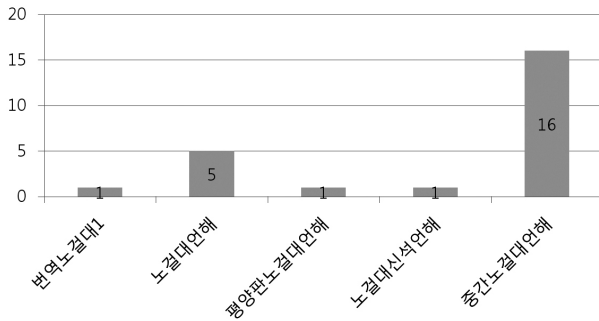
1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7370&mobile&categoryId=1629>>.

20) 정승혜(2000),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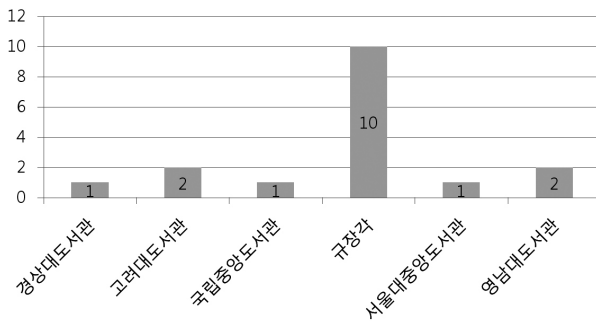
21) 안병희(1996), 1-20. 참고로 韓國書誌學會 編刊,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錄: 美國 Columbia
大學 東亞圖書館所藏韓國本目錄』(1994)에 의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소장되어 있다. 장서각에도 소장되어 있다고 하나 현재 확인불가하다.

이상으로 「노걸대」 언해본의 현전상황을 조사한 결과 「중간노걸대언해」가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규장각에 가장 많은 판본이 소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3> 참조).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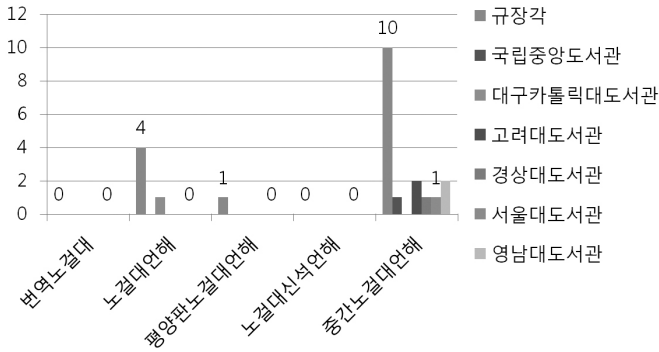


<그림 11> 「노걸대」 언해본 현전상황



<그림 12> 「중간노걸대언해」 소장현황

22)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1865~1935?)의 『조선서지(朝鮮書誌 Bibliographie Coréenne 3권 및 보유(補遺) 1894~1901)』에 많은 역학서의 소장처가 사역원으로 되어 있다. 사역원은 갑오경장으로 폐지되게 되는데, 그후 사역원 소장본들은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 역학서의 현전상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역학서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책판(冊版)의 경우 약 4백여장이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림 13> 국내 「노걸대」 언해본의 소장현황

4.2 규장각 소장 「노걸대」 언해본 분석

국내의 현전의 「노걸대」 언해본 조사 결과 대부분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표 3>과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에 의하면 규장각에는 「노걸대언해」 4종과 평양판 「노걸대언해」 1종 및 「중간노걸대언해」 10종이 소장되어 있다. 서명 사항과 주기사항 위주의 서지적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4.2.1 「노걸대언해」

규장각에는 「노걸대언해」와 평양판 「노걸대언해」 2종이 모두 소장되어 있다. 각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노걸대언해」

규장각에는 4종의 「노걸대언해」가 소장되어 있다.<표 3>과 <그림 2> 참조) <표 3>의 일반적인 서지사항 외에 4종의 규장각 소장본의 서지적 특징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규장각 소장 「노걸대언해」의 서지적 특징

	규1528	규2044	규2304	규2347
표제	老乞大諺解	老乞大諺解	老乞大諺解	老乞大諺解
권수제	老乞大諺解	老乞大諺解	老乞大諺解	老乞大諺解
관심제	老乞大諺解	老乞大諺解	老乞大諺解	老乞大諺解
서근제	老乞大諺解	老乞大諺解	老乞大諺解	老乞大諺解
권책	上, 下	乾, 坤	乾, 坤	乾, 坤
크기	33.8×21.8cm	35.6×22.8cm	35.6×22.8cm	35.6×22.8cm
印文		廂庫	廂庫	廂庫
문단표시	화문어미	화문어미	화문어미	화문어미
주기	MF85-16-97-L	표지우상단: 盈	乾: 吳, 坤: 吳	乾: 宇, 坤: 荒

이상 <표 4>와 같이 규장각 소장의 4종의 「노걸대언해」는 모두 서와 발 및 명단 등의 기록은 없다. 그 중 ‘규1528’의 크기가 조금 다르고 그 외 3종은 모두 같은 인문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곳에 소장되었을 확률이 높다. 표제, 권수제, 관심제 및 서근제 모두 「노걸대언해」이며, 1944년에 ‘규2044’를 「규장각 총서제구(奎章閣叢書第九)」로 영인하였고, 이후 후속 영인본도 이와 같다.

2) 평양판 「노걸대언해」

규장각에는 1종의 평양판 「노걸대언해」가 소장되어 있다.(<표 3>과 <그림 3> 참조) ‘규2303’은 서와 ‘平安監營重刊’이라는 간기가 있고 권수제와 서제 및 관심제가 「노걸대언해」이다. 본문 중 새로운 문단의 시작 표시를 화문어미로 쓰는 등의 형태적 특징이 보인다. 영인본 평양판 「노걸대언해」는 이를 저본으로 하고 있다.

4.2.2 「중간노걸대언해」

규장각에는 10종의 「중간노걸대언해」가 소장되어 있으며, 그중 특히 ‘古3917-1’의 경우 그다지 조사되지 않았던 판본이다.(<표 3>과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참조)²³⁾ <표 3>의 일반적인 서지사항 외에 서지적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규장각 소장 「중간노걸대언해」의 서지적 특징

	표제, 권수제, 판심제	권 책	반관과 전체 크기(cm)	주 기
一簑 古 495.1824- Y63j	표제: 老解 권수제, 판심제: 重刊老乞大諺解	상권 1책	28.4×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印文: 中村藏 • 藏書記: 久任所 • 사안별 순서를 상란위에 목서 • MF85-16-340-D
一簑 古 495.1824- Y63jc	표제: 老解 권수제, 판심제: 重刊老乞大諺解	하권 1책	22.3×1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별 순서를 상란위에 목서 • 본문중 주색방점 • MF99-16-33-O
一簑 古 495.1824- Y63jb	표제, 권수제, 판심제, 서근제: 重刊老乞大諺解	2권2책	21×17.1 35×2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지, 면지와 오침안 개장 • 사안별 순서를 상란위에 목서
가람古 495.1824- Y63ja	표제: 老乞大諺解 권수제, 판심제: 重刊老乞大諺解 서근제: 老解	2권2책: 上下	22.9×17 32×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문중 목색방점
奎2049	표제: 老乞大諺解 권수제, 판심제: 重刊老乞大諺解	2권2책: 上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F83-16-106-B
奎2050	표제, 서근제: 老乞大諺解 권수제, 판심제: 重刊老乞大諺解	2권2책: 上下	22.7×17.6 35×2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인본
奎2051	표제, 서근제: 老乞大諺解 권수제, 판심제: 重刊老乞大諺解	2권2책: 上下	22.7×17.6 35×2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별 순서를 상란위에 목서, 단 1-16까지 • 표지우상단에 '閣上', '閣下' 기록
奎4866	표제, 권수제, 판심제, 서근제: 重刊老乞大諺解	2권2책: 上下	22.1×17.6 31×20.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지와 오침안정실: 미색 • 본문중 주색방점과 목색방점 • 사안별 순서를 상란위에 목서 • 상권 바지막장 목서
奎 5566	표제, 권수제, 판심제, 서근제: 重刊老乞大諺解	2권2책: 上下	22.8×17.6 32.4×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지우상단: '乙卯重刊'
古3917-1	표제: 老解 권수제, 판심제: 重刊老乞大諺解	2권2책: 上下	22×16.5 30.5×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印文: 中村藏 • 藏書記: 앞표지우하단에 久任所 • 사안별 순서를 상란위에 목서 • 상권 바지막장 목서 • MF85-16-259-C

23) 규장각에 9종의 「중간노걸대언해」가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판본을 포함하여 총 10종 소장이다.

규장각 소장 10종의 『중간노걸대언해』는 대체적으로 체제는 상하 2권2책으로 서문이나 발문 그리고 간기 등이 없다. <표 5>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권수제와 판심제는 『중간노걸대언해』라 표기하고 있으며, 일부 표제와 서근제는 『중간노걸대언해』, 『노걸대언해』, 『노해』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표제와 서근제에 차이가 나는 것은 후대에 묵서하여 발생한 차이로 보이며, 대체로 반곽의 크기 차이는 크지 않으나 전체 크기의 차이가 나는 것은 복각본으로 간행되면서 발생한 차이로 보인다. 또한 이후 소장자에 의하여 본문에 각 사안별 순서가 묵서되어 있는 것과 주색이나 묵색으로 방점표시를 한 것도 발견되나 이것 또한 각 소장자에 의한 표시로 보인다.

특징적인 것은 ‘일사고495.1824-Y63’와 ‘고3917-1’의 경우 인문 ‘중촌장(中村藏)’과 장서기 ‘구임소(久任所)’가 공통적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는 소장자가 같은 경우로 보인다. 한편 ‘규5566’은 앞 표지 상포각(上包角) 위치에 ‘을묘중간(乙卯重刊)’이라는 묵서(墨書)가 있다. 이는 원전인 『중간노걸대』와 같은 시기에 언해가 이루어졌거나 중간본이 을묘(1795)에 이루어졌음을 묵서한 것으로 보인다. 영인본은 ‘규2050’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5. 결 언

본 연구는 역학서와 『노걸대』 언해본의 간행을 살피고, 국내연구자들이 연구에 활용한 『노걸대』 언해본의 서명기술을 분석하였다. 이어 국내외 현전의 『노걸대』 언해본을 조사하고 특히 규장각 소장의 2종의 『노걸대언해』와 『중간노걸대언해』의 서지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연구자들이 연구에 활용하는 『노걸대』 언해본의 서명을 고찰한 결과 『번역노걸대』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노걸대』 언해본 중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 및 평양판 『노걸대언해』의 활용을 보면 전체 $\frac{2}{3}$ 이상이다. 그러나 『노걸대언해』 서명표기의 약 30%는 부정확하며 평양판 『노걸대언해』의 경우

31.2%는 ‘평양판’을 명기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노걸대언해」나 평양판 「노걸대언해」를 활용하면서 각각 약 1/3은 서명의 표기를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국내 현전의 「노걸대」 언해본 조사 결과 1) 「번역노걸대」는 성암고서박물관에, 2) 「노걸대언해」는 규장각(4종)과 대구카톨릭대학교 도서관(1종)에, 3) 평양판 「노걸대언해」는 규장각(1종)에, 4) 「노걸대신석언해」는 컬럼비아대학(1종)에, 5) 「중간노걸대언해」는 경사대도서관(1종)과 고려대도서관(1종), 국립중앙도서관(1종), 규장각(11종), 서울대중앙도서관(1종) 및 영남대도서관(1종)에 소장되어 있다. 즉, 국내외 현전의 「노걸대」 언해본 중 「중간노걸대언해」가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규장각에 가장 많은 판본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규장각 소장의 「노걸대언해」와 평양판 「노걸대언해」 및 「중간노걸대언해」의 서지적 특징 고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4종의 「노걸대언해」는 현종 11년(1670)에 운각에서 금속활자로 간행한 것으로 표제, 권수제, 판심제 및 서근제 모두 「노걸대언해」의 동일 판본이나 약간의 크기와 인문의 차이가 있다. 이는 한편 간행시기를 기준으로 현종판 「노걸대언해」 또는 ‘현종판’으로도 표기하고 있다.

2) 1종의 평양판 「노걸대언해」는 서가 쓰인 시기와 간기(平安監營重刊)로 영조 21년(1745)에 평양에서 간행된 중간본임을 알 수 있다. 국내연구자들은 이 판본에 대하여 간기에 의거하여 평양판 「노걸대언해」 또는 기영판 「노걸대언해」로 부르며, 일부 평안판 「노걸대언해」라고도 한다. 권수제에 의거하여 「노걸대언해」라고도 하고, 표제에 의거하여 「구간노걸대언해」로도 명명하고 있다. 또한 간행시기를 기준으로 영조판 「노걸대언해」 또는 ‘영조판’으로도 표기하고 있다.

3) 「중간노걸대언해」는 정조 19년(1795) 이수(李洙) 등이 왕명을 받들어 간행한 「중간노걸대」를 언해한 것이다. 규장각 소장본이 9종으로 알려져 있으나 10종인 「중간노걸대언해」는 대체적으로 2권2책으로 서나 발 그리고 간기는 없다. 공통적으로 권수제와 판심제는 「중간노걸대언해」라 표기하고 있으며, 동일한 내용

과 체제로서 일부 표제와 서근제가 묵서되어 있고 사안별 순서와 방점이 주색 또는 묵색으로 첨가되어 있으나 대부분 소장자에 의한 표시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연구자가 가장 많이 연구대상으로 활용하는 「노걸대」 언해본에 대한 실재와 현전본 및 규장각 소장본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후 연구 진행을 위한 정확한 서지사항 제공에 일조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通文館志」.

Ki Joong Song. “The Study of Foreign Languages in the Yi Dynasty.”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55(1982). 1-63.

姜信沆. 「진하지 않는 역학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김문웅.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의 현종판(1670)과 영조판(1745)에 대한 비교 연구.” 『국어사연구』 5호(2005). 7-48.

김주국.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의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국어교육. 2008.

김진구. “노걸대의 복식연구.” 『服飾文化研究』 4권 1호(1996). 1-14.

金炯哲.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比較.” 『文學과 言語』 1집(1980). 93-122.

남광우. “신발견(新發見)인 최세진(崔世珍)의 저 번역노걸대(翻譯老乞大) 권상(卷上)을 보고.” 『국어국문학』 55-7합병호(1972).

맹주익. “老乞大諺解류 諸版本의 번역에 관한 연구(1).” 『中國學研究』 36집(2006. 6). 3-25.

맹주익. “老乞大諺解類 諸版本중 ‘將’의 번역에 관한 연구.” 『中國學研究』 38집(2006. 12). 31-56.

『翻譯老乞大』.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7370&mobile&categoryId=1629>>.

서정원. “『老乞大』 刊本들을 통해본 14-18세기의 복식관련 용어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2.

“세계유일 元代 중국어 회화서 『노걸대』 완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0699925>>.

안병희. “老乞大와 그 諺解書의 異本.” 『인문과학논총』 35(1996. 6). 1-20.

梁五鎮. “原本 『老乞大』의 文化史的 價値에 대하여.” 『中國學報』 47집(2003). 43-65.

정 광, 윤세영. 『司譯院 譯學書 冊版研究』. 서울: 고려대출판부, 1998.

鄭丞惠. “『朴通事新釋(諺解)』의 간행에 대한 一考察.” 『語文研究』 32권 1호(2004. 봄). 63-83.

정승혜. “司譯院 漢學書의 基礎的 研究.” 『藏書閣』 3집(2000). 167-214.

鄭丞惠. “한국에서의 한어(漢語) 교육과 교재의 역사적 개관.” 『국어사연구』 4호(2004). 123-171.

鄭在永. “譯學書 자료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17호(2000. 12). 301-338.

『朝鮮王朝實錄』. <http://147.46.103.182/OIS/JWS/VIEWER.jsp?nodeid=176092&tablename=KYS_JWS_Y_TBL>.

한미경. “국내연구자의 『노걸대』 연구 및 판본활용에 대한 계량적 분석.” 『서지학연구』 51집(2012. 6). 445-471.